

표절을 피하는 방법

(How to Avoid Plagiarism)

살면서 뭔가를 피하려 한다면 먼저 그 피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돈 사기를 당하려 하지 않는다면, 돈을 투자하기 전에 그것이 사기인지 사기가 아닌지를 알아챌 수 있어야 한다. 안그러면 투자한 몫의 돈을 떼이게 된다. 표절도 꼭 마찬가지다! 표절을 피하려면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학생은 표절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만 한다. 안그러면 학생은 페일 점수(낙제)를 받게 되고 학적부(학업 기록)에 영원한 낙인을 찍히게 된다.

표절이란 무엇인가

알파크루시스 대학교 학생 핸드북에 표절이 무엇인지 간단히 나와 있다. “표절은 다른 저자의 글을 도용해서 자기 것으로 제출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글이다”¹라고 나와 있다. 이 정의에서 ‘저자’ (writer)를 ‘작자’ (author)로 바꾸면 더 정확한 정의가 되는데, 그 이유는 표절이 글 뿐 아니라 그림/사진, 음악, 예술품 등등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표절은 왜 문제가 되는가?

첫째로, 알파크루시스 학생 핸드북을 보면 표절은 “원작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나타나기 때문에”² 문제가 된다고 나와 있다.

둘째로, 표절은 마땅히 원작자가 받아야 할 그 원작의 가치를 그 원작자에게서 빼앗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학생이 내는 과제들과 관련해서 말한다면, 원리적으로 볼 때, 우리는 과제들을 “지적 재산” 곧 “그 학생의 생각과 지성에서 나온 재산”³이라고 부른다. 이 점을 가지고 주의깊게 생각해 보자. 어떤 학생이 타인의 정보 혹은 “지적 재산”을 베껴 온다면,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지식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결국 원저자가 마땅히 받을 원작의 가치성을 그 원저자에게 돌리지 않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관련된 또다른 경우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 어떤 본문에서 글을 빌어올 때 각주를 달았다고 할지라도, 원저자의 표현 그대로(원저자가 사용한 단어들)를 따왔으면서도 인용부호(따옴표)를 붙이지 않았다면 이것도 역시 표절인 것이다. 왜냐하면 원저자가 자기 자신이 사용한 단어들로 작성한 표현은 그 학생 자신의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분명하고 명확한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려고 애쓴 원저자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용부호를 달지 않고 원저자의 표현을 갖다 쓴 것은, 원저자가 받아야 할 원작의 100 프로의 가치성을 100 프로 모두 원저자에게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지적 재산”을 절취한 것이라는 말이다.

¹ Student Academic Handbook SCD Undergraduate 2009, 31.

² Student Academic Handbook SCD Undergraduate 2009, 31.

³ Australian Government, “What is Intellectual Property?,”

<http://www.ipaustralia.gov.au/ip/index.shtml> [accessed November 10, 2009].

표절의 보기들

이러한 표절 문제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다양한 표절의 보기들을 제시한다.

1. 인용사례 1

a) 직접인용의 경우, 인용부호 (“ ”)를 붙이고 각주를 달아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표절이다.

보기-a.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에서 구출하신 구속 곧 새로운 창조와 어떤 의미에서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늘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즉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이다. 창조시에 언약을 어기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피 흘림을 암시하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 수치를 가리시고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기에서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덴이라는 장소를 그룹 천사가 지키는 것처럼, 지성소와 성막 사이 휘장에도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이신 행동과 원리는 언약의 증거막을 만들 때에 보이신 행동과 원리와 서로 상응한다.**

위 보기에서 진한 글자로 처리한 마지막 문장은 직접인용이다. 즉, 어떤 출처에서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따온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인용부호(큰 따옴표)를 인용 본문에 (처음과 마지막에) 넣어주고 그 인용부의 마지막에는 각주번호를 달아 주고, 그 각주에 대한 내용(출처가 되는 책 정보)은 본 글이 쓰여진 페이지 하단에 제시되어야만 한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에서 구출하신 구속 곧 새로운 창조와 어떤 의미에서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늘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즉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이다. 창조시에 언약을 어기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피 흘림을 암시하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 수치를 가리시고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기에서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덴이라는 장소를 그룹 천사가 지키는 것처럼, 지성소와 성막 사이 휘장에도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이신 행동과 원리는 언약의 증거막을 만들 때에 보이신 행동과 원리와 서로 상응한다.”¹

¹ 송제근,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 (서울: 두란노, 2003), 185.

2. 인용사례 2

- b) 위의 송제근이 쓴 글을 단어 한두 개만 바꾸고 각주를 넣어 (인용부호 없이) 간접인용 형태로 인용해도 표절이다.

보기-b.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에서 구출하신 구속 곧 새로운 창조와 어떤 의미에서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늘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즉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이다.

창조시에 언약을 어기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피 흘림을 암시하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 수치를 가리시고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기에서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덴이라는 장소를 그룹 천사가 지키는 것처럼, 지성소와 성막 사이 휘장에도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보이신 행위와 원칙은 언약의 증거막을 만들 때에 보이신 행위와 원칙과 서로 상응한다.**¹

¹ 송제근,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 (서울: 두란노, 2003), 185.

위 보기에서 진한 글자로 된 부분이 원문을 충분히 자기 말로 바꾸지 않고 다만 단어 몇 개만 변경시켜 놓았으므로 비록 각주를 달았지만 표절이 되는 것이다.

보기-c (만약 아래와 같이 자기말로 바꾸고 간접인용하였다면 표절이 아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는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에서 구출하신 구속 곧 새로운 창조와 어떤 의미에서 서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는 늘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즉 새롭게 창조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이다.

창조시에 언약을 어기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피 흘림을 암시하는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 수치를 가리시고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기에서 반복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덴이라는 장소를 그룹 천사가 지키는 것처럼, 지성소와 성막 사이 휘장에도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었다. **창조와 출애굽이라는 두 개의 큰 획을 긋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의 행동과 원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되 이는 출애굽에서는 특히 언약의 증거막을 건조하는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난다.**¹

¹ 송제근, *오경과 구약의 언약신학* (서울: 두란노, 2003), 185.

위와 같이 원저자가 말한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자기 언어로 바꾸어 간접인용을 하고 각주를 달았다면 이것은 “지적 재산”을 절취하지 않은 것이니 표절이 아니다.

3. 상식적 지식의 사용은 표절이 아니다

상식적 지식은 표절이 아니지만, 오리지널한 아이디어를 갖다 쓸 경우에는 표절이다. 위의 보기-C에서처럼 원저자는 언약의 증거막을 건조하는 사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동과 원리를 창조 사건과 연결짓고 있는데 이는 그 저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이므로 비록 나의 말로 바꾸어 표현했더라도 나의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각주를 다는 것이 옳다.

참고로, 호주의 모나쉬 대학교에서는 “어떤 정보를 출처표기 없이 적어도 5사람이 다른 곳에서 사용했다면” 그 정보는 “상식”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보기-d 각주를 달지 않아도 되는 상식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함이었다.

보기-e

요한이 예수의 수난 설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예수가 죽은 것을 보고 군인 하나가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예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말하는 ... 본문의 의도는 ...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배격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위의 보기-e의 내용은 상식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다. 원자료에 대한 각주를 달아야만 할 것이다. 원자료의 말을 자기말로 충분히 바꾸어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 생각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와 같이 각주를 달아주어야 한다.

보기-f

“요한이 예수의 수난 설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예수가 죽은 것을 보고 군인 하나가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예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고 말하는 ... 본문의 의도는 ...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배격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¹

¹ 김득중, *요한의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1994), 143.

4. 출판되지 않은 저자의 말/글이라도 자기 것으로 사용하면 표절이다. 어떤 저자의 말/글이 출판되지 않았다고 해도 당신은 그 말을 (출처 표기 없이) 가져올 수 없고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안된다. 특히 그 말/글이 (아직 출판되지 않은) 동료 학우의 것인 경우가 그렇다. 이 점에서, 반대로, 당신이 동료 학우에게 당신의 과제를 빌려주어 그 학우가 당신의 과제를 베꼈다면, 당신이 다른 학우 것을 베낀 경우와 똑같은 (표절) 조치가 내려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러므로 같은 반의 다른 학우에게 과제를 빌려주면 안된다. 물론 이 말은, 당신이 동료 학우가 낸 과제에 대해 어떤 토론을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이렇게 경고하는 것은, 과제의 구조나 인용이나 자료 그리고 그 과제의 결론을 당신이 베끼거나 남이 베끼도록 보여주지 말라는 말이다. 당연히, 당신이 대화 중에 오갔던 교수의 말이나 생각을 가져다 쓸 때에도 출처를 표기해야 한다. 홍길동 학생이 박찬양 교수와 시드니에서 대담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나왔던)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다.

보기-g

대개 호세아서는 크게 1-3 장과 4-14 장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분석하지만 1-2 장과 3-14 장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¹

¹ 박찬양, 대답자 홍길동, 시드니, 2019년 3월 5일.

5. 자기 자신의 글을 따오는 경우도 표절

만약 작년에 당신이 사복음서 과목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소논문을 썼다고 하자. 그런데 이번 학기에 당신이 조직신학개론을 들으면서 같은 주제로 소논문을 쓴다고 하자. 만약 당신이 조직신학개론 과제에 들일 에너지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작년에 냈던 과제의 섹션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번 과제에 그대로 옮겨 넣었을 경우 이것도 표절이다. 자기 자신의 글이라 하더라도 표절은 안된다는 것이다.

6. 서평(어떤 책이나 논문을 읽고 자기 입장에서 학문적 평가의 글을 쓰는 경우): 어떤 책이나 논문을 읽고 서평을 쓸 때에도 이미 작성된 기존의 서평을 출처를 밝힘 없이 차용할 경우 표절이 되어 치명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당신이 과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고 할 때 어떤 동일한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평한 글을 글자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른 서평자의 생각을 각주 없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가져온다고 한다면 표절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참고 했다는 것을 제대로 표기해서 그것이 다른 서평자의 생각임을 밝힐 때는 괜찮다. 하지만 그래도 명심해야 하는 것은, 어떤 문헌(책이든 논문이든)에 대한 리뷰는 그 문헌에 대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적어야 되는 것이지 그 문헌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7. 이미지를 사용할 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표절은 글로 쓰여진 저작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과제에 어떤 이미지를 카피해서 옮겼다면, 그 출처를 기입해야만 한다. 사용한 이미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창작한 것이기는 해도 일반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각주를 달고 사용해도) 허락 없이 가져왔을 때는 법적 사용료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www.flickr.com 같은 사이트는 상위의 검색 기능을 가진 웹사이트인데, 이러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영역에 속한 이미지들만을 이용자에게 미리 가려내어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8. 15 퍼센트 법칙

마지막으로, 어떤 학생이 과제를 할 때 그 과제에서 직접인용이 15 퍼센트를 넘을 때 그 과제는 그 학생 자신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라고 사려되지 않는다. 에세이는 학생 자신의 저술이어야 하고, 학생 자신의 생각들에 대한 짜임새를 나타내야 하고, 학생 자신의 사용 언어들로 쓰여져야만 한다. 확실히, 인용은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야 한다.

계약 부정행위(Contract Cheating)란 무엇인가

‘계약 부정행위’는 하나의 심각한 학적 부정직 형태다. 자기 과제와 여타 학적 저술을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부분적으로) 해 주거나 완성하되, 그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 글 (acknowledgement)을 적지 않거나 교수의 허락 없이 한 경우를 말한다. 다음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다.

- 자기의 사적인 튜터, 가족 일원, 혹은 친구 같은 사람.
- 에세이 튜터링 업체, 논문 공유 웹사이트, 에디팅 서비스 업체, 과제 대필 업체 등 ‘ghostwriting’ (유령저작)으로 알려짐.

양자나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거래나 계약이 맺어짐으로 이것을 ‘계약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때때로 이것은 돈을 지불함이 이루어지는데, 비록 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계약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되면 알파크루시스 대학교에서 제적 처리된다.